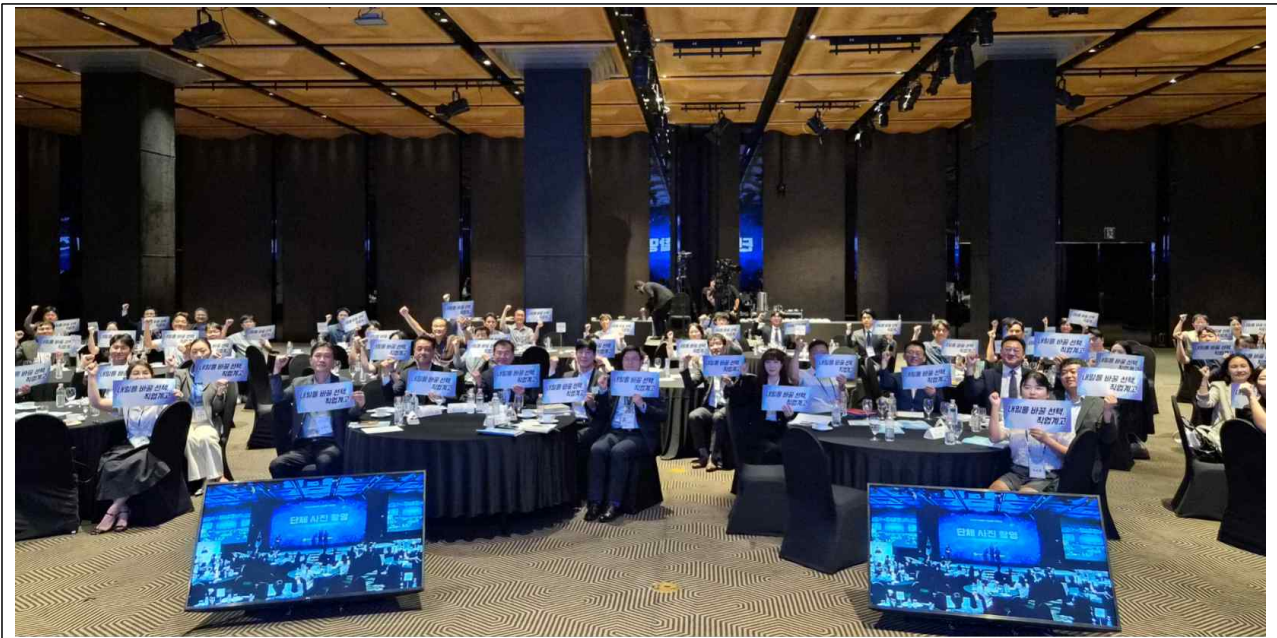


“기술인재가 열어가게 새로운 시대”

교육부·한국발명진흥회, 직업계고 인재성장 기업포럼 성료



<사진설명: 교육부·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주관한 ‘2026 직업계고 인재성장 기업포럼’
참석자 기념사진 촬영 모습>

- 인공지능 전환(AI) 시대 기업 맞춤 직업교육 정책 공유...
- 기업 현장의 기술인재 채용 중요성 확인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는 8월 2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6 직업계고 인재성장 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직업계고 인식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고졸 인재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보기술(IT)·전자·에너지·호텔·뷰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70여개 기업과 13개 공공기관·교육청, 30여개 협회·단체 등에서 약 200명이 참석해 직업계고 교육 정책과 채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인사담당자의 직업계고 인재 채용 경험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취업한 직업계고 졸업생의 성장 사례를 통해 직업계고 인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채용·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전환(AI) 시대 속에서 중등직업교육 필요성과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교육부 정책 발표에 이어 사전 취합 질문과 현장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기업 관계자들은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교육, 현장실습, 고졸인재 채용 지원정책 등에 대해 질문했고, 교육부는 현장에서 답하며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교육부 유지완 국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직업계고 인재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직업계고 인재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직업계고 교육이 산업 현장과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